

보도자료
PRESS RELEASE

모든 의정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민

Tel. 02-784-0924 Fax. 02-788-0299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01호 **더불어민주당**



배포일 : 2019년 7월 23일

보도가능일 : 즉시

담당자 : 허동혁 보좌관

이상민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연구요원 더 확대해나가야”

- 과기계 산업계 전문연 폐지 반대 ‘전문연구요원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이후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발표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과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하는 이공계 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초하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감축이 발표됐다.
- 과학계는 주제발표를 통해 AI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방안, 이공계 병역 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에 대해 밝히고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 또 산업기술계 역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은 시행이후 40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석박사급 인력 활용 제도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수가 증가하지만 현재 정원으로는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상민 의원은 “국방력은 단순 병력 숫자로 결정되지 않으며, 4차산업시대 국방력은 과학기술이 중요해진다”며 “국방부가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